

보도자료



서울대학교
SEOUL NATIONAL UNIVERSITY

보도 희망 일시	2024. 3. 7.(목) 14:00 배포/ 즉시 보도
문의	담당부서: 교무처
	문의: 홍보팀 880-5054, 5815 메일 snupr2@snu.ac.kr

배포일: 2024.3.7.(목)

의과대학 정원 신청에 대한 설명

- 우리 대학은 '25학년도 의예과 정원 15명 증원을 신청하였음
 - * 증원 반영시 의예과 정원 135→150명
-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정원 15명을 회복하여 필수공공의료·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
- 한편, 기초보건 및 첨단 바이오·헬스 분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(가칭) '의과학과'를 신설할 계획임
 - 우리 대학은 임상 의사가 아닌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다양한 교육·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해 옴
 - * 우리 대학은 2008년부터 의과대학 의사과학자양성사업단을 중심으로 기초과학 연구에 전념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추진해 왔음
 - * 의과학과 신설 시, 우리 대학의 바이오·헬스 관련 학과 및 첨단융합학부와 연계하는 교육·연구를 통하여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- '25학년도에 의과학과 신설을 전제로, 학부 정원 50명을 별도 신청 하였음

- 신청과정에서 학내·외 다양한 의견을 듣고, 의료계의 현실과 국가적·국민적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 대학이 시대적·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을 숙고하였음

- 금번 신청이 현재 우리나라와 국민이 직면한 어려움 해결에 기여함과 동시에, 우리 의과대학 학생·교수, 병원 구성원, 의료계에서 염려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은 학내·외 여러 제도들을 정비해 나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
 - 이를 위해 금번 증원이 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의사과학자 양성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대학 차원의 정책적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음

- 지금의 어려움은 정부와 대학,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는 일

- 특히, 의과대학 학생·교수, 병원 구성원, 의료계에서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

○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
바람

□ 우리 대학은 서울대병원과 함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필수공공
의료와 첨단 바이오·헬스를 통한 新 성장동력 창출 등을 포함한
장기적인 의료 개혁에 역할을 다하겠음. 끝.